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들

언제나 그랬듯이 등산만 한다 하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들, 길고긴 26키로산행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들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일본등산애호가협회는 일본에서 여가시간에 등산활동을 조직하는 조선족위주의 등산협회입니다. 현재 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본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3년 연속 일본의 제일봉인 후지산등산에, 소규모 등산도 년 20차 좌우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단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은 2020년부터는 솔로등산이 인기를 구가하는 반면에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는 전제하에 3-5명 정도의 소규모 등산도 주요 등산스타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등산에 관한 기초지식이나 좋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에서 안전등산을 위한 정보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光岳 (てかりだけ)

그러던 지난 5월30일, 몇년만에 차 두대를 동원해서 8명이서 함께 하는 光岳(てかりだけ)투어를 조직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등산만 한다 하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들, 길고긴 26키로산행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기고 일상이 정상화로 돌아오는 그대에, 우리의 활동도 더욱더 활발히, 더욱더 많은이들을 품으면서 재미있는 등산의 한페이지를 적어나아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光岳(てかりだけ)는赤石山脈(南アルプス)南部の標高2,592 mの山である。日本百名山に選定されている。



焼岳(やけどだけ)は飛騨山脈の長野県と岐阜県にまたがる標高2,455 mの活火山で、別名は硫黄岳。常時観測対象の火山に指定され、日本百名山に選定されている。